

현장과 시각

“행정구역 개편 자치 몰락”



채희중 사회2부 차장

“국가 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비능률의 원인을 중앙 행정기관이 아닌 지방 행정기관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정치인들의 의도된 작업입니다”

지난 10일 여수시 디오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들 비롯 한·도지사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폐지 및 전국 70여개 광역시 개편안 추진에 대해 대부분 반대입장을 보였다.

시·도지사들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 백년을 내려온 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전국을 균일하게 70개 광역시로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불리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70개 광역도시 개편안은 모든 행정의 중앙집권화를 가져와 사실상 지방 분권 및 지방 자치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등 중앙단체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방 광역단체를 없앤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버리고 중앙집권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는 민주국가의 근간인 만큼 현 정부의 행정개편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난했다.

박광대 광주시장도 “국회의원 자신들도 본인의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행정구역 개편 먼저 하자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민의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면 지방자치의 사실상 무너지고 중앙집권이 강화될 뿐”이라고 반대했다.

협회의 초반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정 구역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면서 시도지사들은 격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자신들의 반대 표명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자칫 ‘밥그릇 쟁취’로 비칠 수 있다는 데 공감,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의 신중한 태도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도지사들은 “실익보다는 지방분권 후퇴, 지역갈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를 지켜보면서 행정 구역 개편 논의는 먼저 그 내용과 절차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수 백년 역사를 이어온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체제를 국민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으며, 국가의 비효율성의 원인을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찾으려는 정치권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시도지사들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chae@kwangju.co.kr

美 2,500억달러 투입 은행 지분 매입

금융기관 구제 세부계획 발표...채권·당좌예금 지급보증 확대

미국 정부는 14일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를 투입,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메릴린치 등 9개 주요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지분을 사들이고 앞으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채권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구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선진 7개국(G7) 회의의 다른 회원국이 취한 조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노력의 하나로 마련됐다.

◇은행 지분매입 2천500억달러 긴급투입=재무부는 7천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2천500억달러를 BOA와 메릴린치 등 9개 주요 은행과 나머지 금융기관들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2천500억달러 중 절반인 1천250억달러는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

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메릴린치 등 9개 주요 은행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은행별 지분 투자금액을 씨티그룹 250억달러, 웰스파고 250억달러(와코비야 50억달러 포함), JP모건 체이스 250억달러, BOA 200억달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각 100억달러, 메릴린치 50억달러, 뱅크오브뉴욕멜론과 스테이트스트리는 각 20억~30억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오는 11월14일까지 재무부에 지분매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금액은 위험자본의 1%이며 최대는 개별 금융기관에 250억달러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FDIC 한시적 유동성보장 프로그램 운영=선순위무보증채·당좌거래 지급보증=연방예금보장공사(FDIC)는 은행 간 거래와 기업들끼리 자금 거래와 결제가 원활하게 이

뤄지도록 돕기 위해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당좌거래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한시적 유동성 보장 프로그램(TLGP)’을 운영하기로 했다.

TLGP는 앞으로 한시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은행과 저축은행,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규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당좌예금 등에 대해 100%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정부가 최대 3년간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새로운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6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또 당좌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부도 위험을 FDIC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거래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美 재정적자 4,548억달러 사상 최대 2007년 비해 3배 육박

지난 9월30일로 끝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4천548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 재무부가 14일 밝혔다.

이는 2007회계연도의 재정적자 1천615억달러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2%에 해당되는 규모다. 올 회계연도에 이처럼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 부양 노력과, 어려움

에 빠진 자본시장 및 저성장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런 시기를 끝내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미국이 처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앞서 4년간의 재정흑자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2002년 1천59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뒤 재임동안 지속적

으로 재정적자에 허덕여왔다.

더욱이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부시 행정부가 올해 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키로 계획을 세움에 따라 내년에는 재정적자가 5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차기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찾는 한국인 관광객 엔고 여파 5년만에 감소

최근 한국의 원화 대비 일본 엔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9월 한달간 부산항을 통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모두 5만9천39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7만1천732명보다 17.1% 줄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만4천912명으로 지난해 9월의 3만1천199명과 비교해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일본 엔화 급등에다 국내 경기침체가 심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중년 남성 흡연, 수명 10년 단축”

핀란드 헬싱키대 연구팀

중년 남성이 흡연을 할 경우 평균 수명이 10년 가량 단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중년 이후에 금연을 하더라도 평생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정상적인 신체조건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국립보건원 등의 공동 연구팀은 1970년대 초 핀란드 중년 남성 1천600명(1919년~1934년생)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 등 제반 요인을 조사한 결과와 2000년 동일인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비교 분석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길이 13m 2년 걸려 만든 자수 14일 중국 장쑤성 지역 수자우에서 수십여명의 여성들이 바늘에 실을 꿰어 자수를 하며 그림을 제작하고 있다. 길이 13m, 폭 1.6m로 제작에만 2년이 걸린 이 거대한 자수에는 만리장성, 양쯔강을 포함한 중국의 내노라하는 풍경이 묘사됐다. /연합뉴스

美SAT(대입 수능) 외국어 선택 한국어 4번째 인기

미국 대학입학수능시험(SAT)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 증가, 한국어가 4번째로 인기 외국어인 것으로 14일 집계됐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SAT II 시험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수는 모두 4천176명으로 스페인어(3천4천491명), 프랑스어(1만1천860명), 중국어(6천542명)에 이어 응시생 규모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일본어의 경우 응시지원자수가 1천733명에 불과했다. 한국어는 지난 1997년 전세계 언어 중 9번째로 SAT II 분야에서 시험과목으로 채택됐으며 해마다 응시생수가 증가, 1999년 2천128명에서 2003년 2천826명, 2005년 3천240명, 2006년 3천888명 등으로 늘었다.

현재 미국 SAT II분야에선 외국어 시험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현대히브리어, 한국어 등 9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Auction Korea)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car auctions, and various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rent.

Advertisement for (재)호남직업전문학교 (Honnam Vocational College) featuring various vocational courses like CAD/CAM, IT, and design. Includes course details, fees, and contact information.